

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청도군에 장학금

성낙성 기자 jebo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03.30 19:45

↑ ↑ 권익현 (좌)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장이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청도군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에서 지난 26일 인재육성장학금 2백만 원을 청도군에 기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는 이날 인재육성장학금 기탁뿐만 아니라, 청도군이 추진하는 ‘칠성유등지구배수개선사업(97억)’, ‘풍각지구배수기 지원사업의 국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권익현 지사장은 “청도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는 지역청도군의 다양한 정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하수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청도군의 미래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해주신 권익현 지사장님을 비롯한 한지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도군의 발전과 지역 사랑에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